남원시, 최첨단 교통체계 구축 나선다

스마트 교차로, 최적 신호주기 산출
혼잡 구간 안내·주차정보 제공 등
교통 실시간 분석…흐름 개선 기대

남원시가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나섰다.

남원시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ITS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전자·정보·통신·제어 등 지능형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교통 시스템을 말한다.

첫 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확보한 국비 15억원을 투입해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교통정보센터와 실시간 방향별 교통량을 수집해 최적의 신호주기를 산출하는 스마트 교차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시켜 주는 교통정보제공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의 잔여 면수를 표시하는 주차정보제공시스템, 돌발상황관리시스템도 각각 설치한다.

지능형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내 진입 교통량 분산, 시내 주요 교통축 및 교통 혼잡 구간에 대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져 최적의 신호 운영에 따른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 지능형교통체계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시스템 구축 확대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서비스 및 시스템을 고도화, 미래형 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스마트교차로 개념도.

정읍 결혼이민자에 '모국 방문' 기회

가구당 500만원…78가구 혜택

정읍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고향을 찾지 못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고향 나들이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정읍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향 방문에 어려움을 겪은 결혼이민자를 위해 예산 규모를 배 이상 늘렸다.

이에 따라 당초 28가구에서 총 78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정읍시에 2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에 가구당 500만원 상당의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공항 왕복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정읍 내 결혼이민자 가정은 총 741가구 2709명으로 시 인구의 약 2.6%를 차지한다. 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0가구 627명의 다문화가정에게 고향나들이를 지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가족 간 유대강화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정읍의 귀중한 인적자원으로 거듭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띵동~' 민원 처리 알림톡 받아보세요

남원시, 단계별 안내 톡 서비스

남원시가 6월부터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상황 정보 제공하기 위해 접수한 민원의 처리 단계별 상황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민원처리 알림 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000만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원시 민원상담 챗봇 '민원똑똑'과 함께 구축했다.

전북 지역 최초로 시행하는 '민원처리 알림톡 서비스'는 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모든 유기한 법정 민원에 대해 ▲민원 접수 ▲담당자 지정 ▲보완·보정 요청 ▲보완·보정 완료 ▲처리기간 연장 ▲처리 완료까지 민원 처리의 모든 단계를 민원인의 휴대전화로 안내한다.

또 최대 2개의 전화번호로 수신받을 수 있어 원하는 경우, 민원인과 용역업체의 직원도 알림 톡 수신이 가능하다. 민원 내용 상세보기를 통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고 민원처리 완료 후 만족도 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미니수박' 1인 가구에도 딱이네~

고창군, 농기센터서 평가회
4kg 이하 15.1% 전국 최다 생산
군, 재배기술·종묘비 등 지원

고창군이 최근 소비성향으로 자리잡은 1인 가구를 겨냥해 맞춤형 '미니수박 평가회'를 개최했다.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평가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전북농업기술원, 고창미니수박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평가회는 수박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고창 미니수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미니수박 각 작목반에서 생산한 수박 품종별 품질평가가 진행됐다.

고창에서는 4㎏ 이하의 미니수박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다. 품종도 애플수박 종류인 꼬망스, 세자, 한손에, 까망애플과 애플수박보다 조금 더 큰 블랙망고, 블랙보스, 흑금성, 베타 등 다양하다.

고창군도 미니수박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종묘비를 지원하고, 일반수박 재배법과 많이 다른 미니수박 재배기술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고창미니수박연합회는 약 100명의 회원이 88.9㏊에서 중·소과종 수박인 블랙망고수박과 블랙보스수박, 애플수박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미니수박 규모의 15.1%를 차지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1~2인 가구도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와 가격으로 수박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미니 수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고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수박도시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심덕섭(맨 오른쪽)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고창미니수박연합회 회원 등이 수박 품종별 품질평가를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착한가격 업소 신규 지정

지정시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

고창군이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를 오는 14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상승 억제와 개인 서비스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우수 업소를 말한다.

지정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업종이며, 외식업 분야와 외식업 외 분야(이미용, 세탁업, 목욕업 등)가 해당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경제일자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은 착한가격 메뉴 비중, 평균 대비 가격 수준, 가격안정 노력도, 이용 만족도, 위생·청결, 공공성 기준 등을 평가한 뒤 현지실사 평가를 거쳐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업종별 기자재, 소모품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홈페이지 상시 홍보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있다.

특히 신규 업소의 경우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가격표지판이 함께 제공된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총 23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8월까지 환경오염 특별 단속

정읍시가 여름철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8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수 다량 배출업소, 재이용·위탁처리업소 등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방류 및 유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정읍천 등 관내 주요 하천지역의 수질상태에 대한 순찰 강화 및 오염원 역추적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특별감시?단속계획을 사전에 홍보해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불법배출 여부 등을 집중 감시?단속한다.

시는 특히 집중 호우 때와 행락철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해 고의적·상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등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